

님께

안녕하세요?

아래와 같이 공주시 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했습니다.

이에 대해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최종 요청사항은 맨 마지막에 정리하였습니다.

해당부서와 공무원 (2023.5.18 당시 기준)

공주시 도로과 송태훈주무관, 이경희도로행정팀장, 박지동도로과장

공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부조리는 아래 경우입니다.

-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 행위

1. 공주시 공무원의 부조리

1) 민원처리 지연

통상적인 민원제출과 행정기관의 응답은 아래처럼 이루어집니다.

민원인

민원작성 및 전달
(해당서식이 있는 경우 서식사용)



행정기관

민원확인 및 접수
민원접수대장에 기록, 등재
기한 내 신속하게 공문으로 민원회신

그런데 민원인의 민원제출과 응답공문 접수는 아래와 같이 **부조리하게 처리되었습니다.**

서식사용 민원서류 작성 및 전달(2022.5.3)

-> 도로과 송태훈 주무관을 만나

민원설명과 함께 접수함

첨부1. 민원서류(2022.5.3)

수개월이 지나도록 민원회신 없음

수차례 민원결과 회신 독촉

->시청에 갈때마다 송태훈주무관을 찾아 응답공문 독촉함.

1년 지나서 민원 응답공문 받음 (2023.5.18)

-> 민원처리 지연

첨부2. 공주시 공문(2023.5.18)

[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**신속·공정·친절·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**]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과정을 확인해보니 추가적인 잘못이 드러났습니다.

공무원의 민원처리 추가 잘못

- 민원서류 분실함
- 민원접수대장에 기록, 등재하지 않음

민원인이 제출한 첨부1 민원서류가 해당부서인 도로과에 없으며(분실) 접수대장에 등재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.

이는 [민원처리자연]보다 더 큰 부조리가 됩니다.

민원인이 2022.5.3, 민원서류 원본을 접수하고 사본을 남겨두었기에 다행이었습니다.

2) 민원응답 공문내용의 내용 부적합

[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·공정·친절·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]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여기에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응답을 추가해도 되겠습니다.

그런데 공주시의 공문회신 내용에는 공정, 적법, 객관, 상식이 모두 어긋나 있습니다.

첨부2. 공주시 공문회신의 내용에는 [...진입로로 판명되어...]가 있습니다.

가)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흔적이 없는데 진입로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.

나)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길인데, 공무원은 직접 걸어서 진입했다고 합니다.

위 내용은 공무원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부조리입니다.

도저히 진입할 수 없고, 걸어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첨부3 으로 설명합니다.

요청사항

1. 이처럼 [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부조리]에 대해 확인 후 조치하여 공무원의 무능을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.
2.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민원서류 분실이나 민원지연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3.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우기며 뻔뻔한 거짓말로 시민을 기망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민원인의 민원서류

첨부 2. 공주시의 응답 공문

첨부 3. 사진과 설명

민원인 양xx (010.43xx.xxxx)

공주시 정안면 xxx xxx-x

추가사항(공주시 기획감사실의 부실조사)

1. 민원인은 위 내용에 대해, 공주시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 신고를 하였습니다.
민원부조리 신고내용
 - 1) 민원처리가 1년이 넘는 것은 중대한 민원부조리입니다.
 - 2) 민원서류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민원부조리입니다.
 - 3) 비상식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는 응답내용(진입로판명)도 민원부조리입니다.

2.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조사결과 응답은 공무원들 감싸는 듯한 부실한 조사결과였습니다.
 - 1) 민원접수내역에 확인되지 않았으며
 - 2) 공주시 응답공문은 민원인의 질의에 따른 안내목적의 공문이었다고 합니다.

3.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조사결과 문제점
 - 1) 민원서류의 접수와 접수대장의 기록/등재는 공무원의 직무입니다.
민원접수내역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
 - 가) 공무원의 민원서류 분실
 - 나) 공무원의 민원접수대장 기록,등재 누락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

- * 민원인이 민원서류 사본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요.
* 그런데 이 사본마저도 기획감사실의 조사팀은 부정하고 있습니다.

- 2) 또 시민의 정식 민원서류가 아닌, 단순질의에 공문응답을 하는 행정기관이 있을까요?
단순질의에는 단순응답이 상식적이고 공문응답을 하지 않습니다.
이런 평계는 공무원 감싸기의 전형입니다.

4.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길인데, 공무원은 직접 걸어서 진입했다고 하는 공무원의 기망행위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.

5. 민원인은 2차 3차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기획감사실의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재조사없이 반복민원으로 취급하여 종결하였습니다.

시민의 증거자료는 전혀 믿지 않고, 부조리 공무원의 변명만을 대변하는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엉터리조사 결과도 지적해야 할 사안입니다.